

牛峯李氏大宗報

發行人兼編輯人：李 隨 寧
發行處：牛峯李氏大宗會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401의3
印刷處：相進印刷社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9-1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그 實踐要綱을 遵守한다.

대중회 정기총회 개최 · 회장선거 실시

회장에 東峰 隨寧고문 선임

元九회장은 臥病으로 사임 후 도미

----- 지난해 11월12일 (음력10.1) 오후 5시부터 성북구 돈암동에 위치한 취선장(신홍-----
----- 사임후)에서 우봉이씨 대중회가 개최되었다.
----- 이날 瑞峰 東寧 명회회장을 비롯한 중무위원 및 각처에서 1백여명의 회원이 참석-----
----- 한 가운데 대중회 1년을 결산하고 공석중인 회장선출 안과 대중회 운영문제 및 현안-----
-----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장선임은 신병으로 사의에 뜻을 표명한 元九회장의 잔임기간-----
----- 을 잊게되는 보결선거로서 이날 만장일치로 隨寧 당회 고문이 선출되었다.



東峰隨寧會長

대중회 회장으로 선임된 東峰 隨寧신임회장은 당년 72세로 경성법전(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 잠시 경성방송국에 근무하다가 변호사개업을 하였으며 제1은행 법률고문, 법률신문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제1은행법률고문과 평화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업을 개업하고 있다. 가정에는 愼宰順(72세)여사 사이에 4남을 두고 있다.

隨寧 회장은 취임소감에서 東苑 元九회장님의 뒤를 잇게 되었다고 진개하고 성의를 다하여 책임기간 중 대중회 발전에 유종의 미를 건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하였다.

수령회장의 취임인사에 이어 곧 안건회의에 들어가 甲寧 도유사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되었

다. 토의 안전 중 健寧宗務委員 은 대중회소집 일자가 음력 10월1일에 개최됨에 따라 전회원의 참석이 불가능하고 청장년층의 참석을 위해서는 날자에 구애없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의장(수령회장)은 음력 10월1로 정한 것은 시조 공정어른의 시제일로서 우리는 북향재배하여왔으며 이러한 전통성을 고려 할 때 제사날자와 같이 변경하기에는 어렵고므로 전회원이 가족까지 모일 수 있는 도입을 별로 제정하여 야외회가

지 개최하는 방법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대중회 창립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우봉이씨 대종보 편집·제작에 따른 丙泰 대종보 주간의 인사와 제작에 따른 회원요망사항 등 협조말이 있었다.

한편 이날 대중회 운영비로 丙玉부회장이 30만원 隨寧 회장이 50만원을 찬조 하였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1985년도 결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5년도 결산보고 내용

수입	금 6,000,248	지출	금 1,591,590
간액	2,940,026	'82총회비	709,000
방세	1,281,000	월회비용	382,700
월회비	730,000	각종세금	71,890
총회비	475,000	소개비	30,000
회사금	100,000	회장 위문	100,000
이자	474,222	출장 및 기타	164,000
		전년총회차자	134,000
총잔액합계			4,408,658

전통가문 유지발전 회장취임사에서 밝혀

지난 해 11월12일 대중회 회장으로 취임한 동봉 수령회장은 취임사를 발표하고 종친일가 간

를 잊게 되었음을 한편으로는 심히 아쉽고 중구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소생이 힘에 겨운 직분을 맡으면서 그 동안 애써 가꾸어온 업적을 바탕으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중무위원 여러분들의 조력과 대중회의 활일을 찾아 성과 열을 다하여 소임

회장취임사

전통가문 유지, 문중자산관리보존

우봉이씨 장학금 제도화 실현이 과제

대중회 회장 東峰 隨 寧

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대중회의 주어진 여건과 관심깊은 종친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평소생각하던 의견과 대중회업무를 종합정리하여 몇가지 본인의 뜻을 밝혀 두고자합니다.

첫째 : 대중회를 중심으로한 宗親間의 相互親睦과 傳統家門

의 維持發展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선조들께서는 오승까지 전통적가문으로 孝悌忠信, 仁義禮智를 第1義의 生活信條로 삼아 왔습니다.

이 思想은 現代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꼭 한번은 다시 생각하여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다. 이러한 빛나는 傳統家門의 바탕 위에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재인식시켜 자손들로 하여금 긍지와 사회발전에 보람이 되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둘째 : 門中資產增殖과 管理 및 先代墳墓守護保存事業의 推進입니다. 이 事業은 좋은 생각



一家間 親睦과 協助로 社會를 위해 奉仕하자

大宗會 顧問 斗溪 丙燕

무릇 貫鄉을 같이하는 同性人 은 마치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하겠다.

즉, 같은 뿌리에서 솟아나는 줄기와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가지와 가지는 마침내 무성한 나무를 이룩하지 않는가...

한 시조에서 派生하는 族人들 을 우리는 一家라고 부른다.

一家란 같은 同一한 家族이란 광의의 뜻이거니와, 우리는 一家를 만날 때 서로 반갑고 기쁘고 '與他自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本能과 같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一家에는 年齡과 行列과 寸數와 地位를 超越하여 서로 親睦을 도모하고 서로 協助精神에 인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一家間에 親睦과 協助를 돈독히 함은 勿論이거니와 우리는 다른 宗派와도 서로 交流하고 親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社會的 環境속에서 살고 간접적으로 社會의 惠澤을 받고 있으므로 社會를 위하여 奉仕하는 精神이 缺如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리함에는 價値이고 創造의인 일에 精進하여 새로운 文化를 生産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族人들이 더욱 健康한 몸으로 萬福을 누리기도 社會的인 活動에 活躍한 結果를 거두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것이 새해에 우리族人들에게 부탁하는 말이다. 丙寅年正月初

常明之燈

※ 항상 밝은 등불이 되라. 書藝家 丙天書

새해들어 순회 신년하례 중무위원들 집안어른 세배

丙寅년 대중회 신년하례회가 1월2일 대중회 임원이 예년보다 많이 모인 가운데 愚石 昌九 博士, 斗溪 丙燕 博士 瑞峰 東寧 博士 덕을 순회 세배하였다.

이날 甲寧 都有事의 안내로 斗溪어른과 瑞峰, 愚石어른택을 차례로 방문하여 신년하례를 하였던 데 집안 어른으로서 노령에도 건강하고 활동적 모습을 보여주어 종친일가들은 마음든

든하였다. 또한 이날 세배 때는 중문현 안 문제와 종친소식을 서로 교환하고 대중회 발전의 대화가 오고 갔다.

그런데 이날 신년하례에 참석한 임원 및 회원은 다음과 같다.

丙務, 丙吉, 丙泰, 丙天, 丙南, 丙鎬, 基寧, 健寧, 甲寧, 俊寧, 德寧, 樂寧, 元茂, 茂學

오늘 본인은 牛峯李氏 大宗會 회장에 취임하면서 먼저 대중회 고문이신 愚石昌九박사, 斗溪 丙燕박사 두어분과 명예회장이신 瑞峰 東寧박사님 그리고 취임 東苑 元九회장님 및 중무위원 여러분과 종친여러분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우봉이씨 대중회는 定款에서 밝힌바와 같이 선조에 대한 墳墓守護와 祖上이 남기신 遺蹟保存의 孝先事業, 그리고, 宗親間의 親睦圖謀, 宗財產의 管理와 造成 등의 목적을 두고 활동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전임회장이신 東苑회장님께서 연임되시는 동안 대중회의 주어진 임무뿐만 아니라 小宗事業은 물론, 종친간의 친목을 위하여 세심하고 자상한 관심으로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신병으로 두번째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소생이 그 뒤

이다. 이 제도는 하루 빨리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여 앞으로 인제기간은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서 대중회로서 중심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밖에 대중회가 해야할 크고 작은 일들을 추려 책임기간 중 관심있게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의 대중회 중점사업은 제1단계로 宗親間 서로 알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조한다는 기본적인 문제를 도출하여 우선 지난해 창간된 대중보를 통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여 상호이해협력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실천은 전 종친여러분들이 돕지 않으면 이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췌로 대중회의 가 이러한 방침을 깊이 인식해서 상호협력이란 대종제야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國史上牛峰人

牛峰李氏 分派系譜를 보면 시조 문경공 公靖어른은 세이드님을 두었는 데 子平은 일찍 죽고 子義(平章事)子晟(平章事) 두 분은 武臣으로 활약하였다. 子義는 延宗(考功郎) 子晟은 嗣宗(侍中)의 아들을 각각 두었다. 延宗의 아들 蒔는 高麗 忠穆王 때 弘文館提學으로 安景의 諡號를 받았다. 門中 科榜錄을 보면 玉堂(大科)에 급제한 斗峰 吉培(太宗辛卯 文科)어른을 비롯한 41명으로 이중 甲科 3, 乙科 6, 丙科 34명이다.

大科급제 어른 34명중 甲科장원은 세분

甲科에 급제한 세분은 大提學 自強 承健어른이 成宗壬寅 重試에서, 吏曹參議 鎬翼어른이 高宗 辛未庭試에서, 大司成 石樵 鎬翼어른이 高宗乙酉廣廣에서 甲科로 登用된 분이다.

이외에 連榜 즉 小科는 進士 23, 生員 12, 司馬 3, 武科 8명이었다.

즉, 文景公 公靖, 義烈公 子晟, 安敬公 蒔, 文穆公 翔, 忠憲公 翽, 文貞公 翺, 文肅公 晚成, 文正公 樸, 文正公 光正, 文忠公 光文, 忠敏公 城, 文貞公 光正, 埈, 忠翼公 鎬俊 어른이 받았다.

한편 贈職을 받은 선대는 文景公 公靖을 비롯하여 39명이며 孝烈旌閭를 받은 有恒어른의 正宗甲寅旌을 비롯하여 열두분이다. (牛峰李氏世譜土卷 1975. 1900 書體本 申卷) 참조

有恒어른은 正宗甲寅旌閭 반고

연대별로 고려와 조선시대 때 두드러진 인물은 公靖어른과 子晟어른이 고려 명종때 큰 활약을 하였고 조선조에 들어서서는 斗峰 吉培(太宗祖 觀察使)어른 자손들이 번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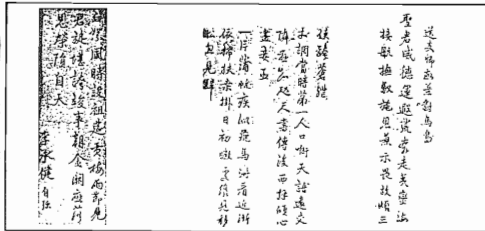
國朝人物考, 李朝實錄 및 朝鮮人名辭書 등 자료를 중심으로

선대의 行跡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斗峰 吉培어른은 서기1411(朝鮮祖 太宗辛卯)년 文科로 급제하여 나중에 황해도 관찰사까지 한분으로 당초 경기도 광주

三友堂 松泉書院에서 모시고 있어 大司成 承健 壯元 及 第 士 禍로 犧牲 諡號 받은 선대 文景公 의 열두분

전 의 承健어른 필적 아들인 대라소장



특히 장남인 圻어른은 사헌부 감찰을 지내었다. 이때 恩序, 咸悅, 江東지역에서 치적을 쌓아 나중에 右參贊의 증직을 받았다. 기어른은 2남 2녀를 두었는데 큰 아들 承寧은 大司成, 承健은 副提學, 承旨 咸鏡道 觀察使 戶曹 參判, 同知 義禁府使에 이르렀다.

承寧어른은 成宗 11년 式年文科에 丙科로 及第하여 注書가 되고 1482년 文科重試에서 壯元 及第한 분이다.

연산군 갑자사화로 회생된 自強어른

연산군 1년에 司成으로 명나라에 다녀 온 후 또다시 同知中樞府使(1501년)에 聖節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 온 분이다. 후에 병으로 관직을 사퇴 1502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후 1504년 연산군이 두번째로 이르킨 甲子士禍로 官爵을 박탈 당했다. 甲子士禍는 연산군의 생모인 尹氏 폐위가 문제되어 成宗의 소생인 安陽君, 福安君을 비롯하여 할머니인 仁粹大妃도 죽이고 윤씨의 폐위를 찬성했던 신하와 죽은 臣下들까지도 部棺斬屍하는 가혹한 형벌을 당한 사화이다.

세 아들 중 두분이 관찰사로 활약

承健어른은 연산군 8년에 세상을 떠났으나 이와같은 갑자사화 소용돌이 속에서 시련을 당한 분으로 2년 후 연산군을 폐하고 晋城大君(中宗)을 왕으로 추대한 中宗反正으로 복관되었다.

그 아들 諱어른의 세 아들 之 吉培어른은 圻(司憲府 監察) 文(中部參奉)之行(觀察使) 之 信(觀察使)은 承健어른의 손자이다.

三兄弟 중 葆眞 菴 之信 (1512-1581)은 中宗26년에 進士가 되고 1543년 式年文科에 乙科로 급제하여 承政院 正字가 되었다.

中宗實錄편찬에 春秋館 記事官으로 참여하고 당시 星州에 흉년이 들자 칙명으로 牧使가 되어 수습에 힘쓰고 그 후 戶曹, 禮曹의 參議, 황해도 관찰사, 判決事를 거쳐 檢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한편 承健어른의 둘째 아들인 詢은 生員으로 당대의 학자인 三友堂 之忠을 낳았다.

三友堂 之忠(1509-1562)은 至治主義를 주장한 義城出身학자 金安國의 문인으로 生員試에 합격하였으나 大科에 뜻을 두지 않고 후진교육에 평생을 바쳤다.

三友堂 之忠어른은 벼슬버리고 후진교육에

특히 明宗 8년에 천거되어 東部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이를 사양하여 더욱 유명하였다.

지금도 충북 청원군 梧倉面 陽地里에 있는 松泉書院에는 高麗의 按廉使 金士廉의 열세분을 모신 곳으로 追配된 분중에는 樂泉 南九萬, 堇隱 朴文秀 등의 名士를 모시고 있다.

대중보증면 및 편집위원회에서 신문발송관계 등도

지난 1월8일 오후 새해들어 대중보증면위원회가 울지로 회장(이수녕변호사사무소)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丙泰 주간의 제안설명 후 발간방침 체제 제호 광고게제 관계 인쇄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이날 牛峯李氏大宗報 啓

종무위원회 개최 대중보발간 계획등 논의

지난 2월 14일 오후 올해 첫 종무위원회가 東峰 隨寧 회장실에서 열렸다.

종무위원 전원(22명)이 참석한 이번 종무위원회는 신임회장으로서 대중회 운영에 늘 관심 깊게 계획을 세우고 일하여 온 회원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대중회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모임으로서 회장이 마련한 단상회였다.

이날 만찬이 끝나자 甲寧 도유사의 인사와 회장인사가 있었다.

東峰 회장은 인사를 통해서 오늘을 계기로 더욱더 단합하고 서로 돕는 기풍과 의리를 나누자고 말하고 대중보를 통한 활동을 확대하여 대중회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말했다.

이어서 基寧위원의 우봉이씨 권발발행에 따른 협조사항과 우봉이씨 문화사 편집의 구상을 제의하였다.

한편 대중보 丙泰주간의 신문발행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丙南위원이 편집의견을 피력했다.

그런데 이날 참석한 임원과 특별히 참석한 회원은 다음과 같다.

丙務, 丙吉, 丙德, 丙天, 丙珣 丙鎬, 丙南, 權寧, 甲寧, 昇寧, 基寧, 萬寧, 俊寧, 樂寧, 元茂, 茂學, 臣茂의 宗親委員과 丙泰(大宗報主幹)茂卓(宗務委員)永範(前宗務委員)

호의 峯字에 있어서 峰이 峯으로 표시되었다는 대중회 때 물의에 대해서 丙泰주간은 빛산자가 옆으로 붙은 熾字로서 위로 붙는 빛산표시가 봉의 정자(峯)라고 설명하고 편집위원들은 의의를 제기한 회원에 대해서 해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청장년회 발자취

우봉이씨 청장년회는 1975년 11월3일(음 10. 1)대중회 발기 제안으로 이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젊은 신진들의 상면기회를 넓히고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자

상면기회 넓히고 활동을 활성화

는 제안에 따라 청장년회는 회장에 丙吉, 부회장에 丙善 元茂, 간사장에 熙泰씨가 선출되어 매월 1회의 모임을 갖고 문중대사를 위해 활동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시국사정으로 모임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1977년 필자가 간사장으로 선출되고 청장년회는 다시 재정립되어 10

선조묘역순례 첫 사업으로 발전

글·德 寧

여명의 회원이 모이게 되고 명실상부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청장년회가 대중회를 위해 활동한 첫사업은 선조묘역 순례순례이다.

이 사업은 1978년 11월 18일 ~19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실시하여 오늘에까지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제1차 선조묘역 순례순례에는 서울 개봉동 청백리 淳 선대묘역을 시발로 忠北 淸原郡 松泉書院과 中原郡 兪敬면 華泉公, 강원도 횡성 두봉공 경기도 용인군 만회당·도암·귀락당 선대의 묘역을 참배하는 계획으로 5개 시도5군5개면의 천리길 여정이었다.

전 의 牛峯李氏 宗親會 會長



관광버스로 31명의 회원이 참가하였다. 일행중에는 대부분이 초경절이었다는 점과 가는 길목에서는 그 지방 일가들이 술선해서 마중나와 주위 호뜻한 혈연의 뜻을 되새기게 하였다. 특히 충남 전의에서는 功茂씨가 淸州에서는 丙玉(부회장)萬

형성의 丙德(대한도시가스(株)부사장·종무위원)씨는 횡성에서 중직을 준비하였다.

九자부터 範까지 5대가 일행으로서 동행하였다는 의미는 자못 크다.

문중 젊은이들 참여의식 높이자

청장년회는 또한 경기도 고양군 향동감찰공모소의 다섯분 분상사조를 비롯하여 용인군 이동천원 천리의 만회당 묘역을 대중회에서 판매할 때 백만원을 찬조하는 등 대중회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 문중 젊은이들이 더 많이 참가하는 청장년회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합쳐 심과 회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 (간사장)

조상의 일 되새겨 시제행사로 추모

각과문중별로 청백리공·장령공등 문중일도 상의

해마다 음력 10월이 되면 각과문중별로 시제를 성대히 거행한다.

지난해 10월에도 청백리공 문중을 비롯한 종성군, 원의랑공, 감찰공, 대사간공, 사직공, 지평공 부사랑공, 참판공의 각과문중별로 시제를 지냈다.

시제소식을 전해온 문중과 문중모임에서 상의된 사업내용을 살펴본다(제공: 丙南)

조선조 성종 때 병조판서를 지낸 청백리공 순 어른의 시제가 지난해 11월 14일 (음 10.3) 오전 서울 구로구 개봉동산 묘역에서 개최되었다.

경향각지에서 문중 일가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청백리공

淳, 참판공(호조)根繼, (청백리공 아들)그리고 외의 신대 몇분의 제사를 올렸다.

제사가 끝나자 청백리공 문중회의(회장: 俊九)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는 基寧씨의 사회로 시작하여 俊九회장의 총회성립 선언에 이어서 회장인사, 결산보고(臣茂), 감사보고, 그리고 1986년도 사업계획안이 상정되었다.

특히 이날 장학재단 설립문제, 지역공원조성 문제, 齋舍건축관계 등의 안건이 확정되어 시행하기로 가결하였다.

총인원 571명의 회원 중 75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청백리

공 집안의 발전적 모임임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청백리공문중에서는 지난 1977년 총회에서 정관을 제정하여 회운영의 체계화를 이루었는데 초대회장은 瑞峰東寧大宗會 名譽會長이 계속하여 오다가 1983년부터 俊九(대중회 부회장)현회장이 연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청백리 공과 종중회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장: 俊九(대중회 부회장)

부회장: 壽寧, 勝範

감사: 丙玉, 雲水

이사: 俊九, 錫九, 丙務, 丙秀, 丙默, 壽寅, 萬寧, 達寧, 基寧, 臣茂, 茂鴻, 寅茂, 勝範, 明範

연락처: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2-8

전화: 484-1532 李俊九

신림동에 모신 장령공 시제 거행

지난 해 11월 5일 (음 10. 4) 掌令公 軾 선조와 참봉공 世鈞 및 世欽선대의 시제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산 134번지 묘소에서 일가친척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 시제는 매년 같은 날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 묘소관리는 문중자손인 丙喆(70세)씨가 평생을 한결같이 관리하고 있어 묘소관리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장령공 軾선대는 成宗2年(1475년)에 사헌부장령을 지내고 執義로 증직된 어른이다.

장령공 자손들은 여주를 비롯한 상주문경 아산 난산 등지에 많이 살고 있다. (제공 丙南)

감찰공묘역 보수 모금액 3백만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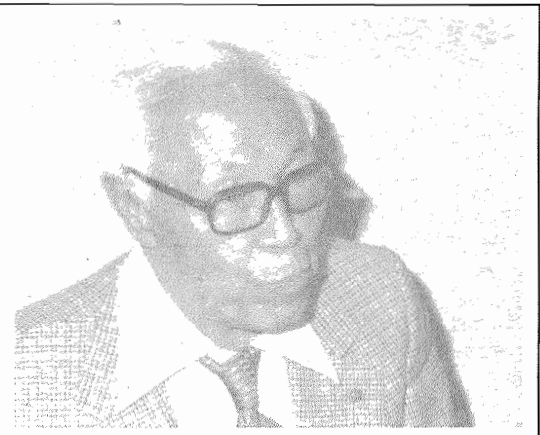
경기도 고양군 화전2동에 있는 감찰공묘역에 모신 황해도 관찰사 之信선대의 묘비가 파손되어 이를 개수하기 위한 계획이 감찰공자손대표(丙天, 健寧)들에 의해 추진 중에 있다.

葆眞菴 之信묘비가 파손된 채 발견된것은 85년 2월 덕은공 자손들이 성묘차 방문했을 때 확인되어 이를 문중에 알리면서 東苑 元九 전회장이 중심이 되어 丙天, 健寧 중무위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감찰공묘역 보수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 보수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모금액은 총 3백만원으로 저금까지(86. 5월말현재) 1백만원이 모금되어 있어 금년 가을까지는 감찰공묘를 비롯한 용인의 歸樂堂 晚成 墳墓까지 整備된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 찬조금을 내 준 일가는 다음과 같다.

元九 (10만원) 樂寧(義仁 10



얼굴 넓어도 자식은 가르치라 愚石昌九博士

웃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나는 자식에게 모르는 것을 일깨워 준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愚石昌九어른은 한평생을 우리나라 농업공학에 몸바치신 나라의 보배요, 집안의 얼굴이다.

특히 수자원의 근원을 이루는 댐공학의 권위자이신 愚石어른은 올해 춘추 여든 둘, 예순다섯나이에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할 만큼 만년 공학도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집안모임에는 꼭 나오셔서 집안일은 물론 자손들의 장래를 염려하여 주시고 넓어도 자식은 가르치라고 일책하듯 말씀하셨다.

최근에는 신경계통 병환으로 출입을 삼가하시고 연구와 집필에 몰두하실 뿐이다.

愚石어른의 경륜이 말해주듯 넓어도 자식을 가르치는 길만이 자신과 집안이 번창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참 뜻을 일깨워 준다. (글·丙泰)

重要略歷 1904. 12. 11 龍仁에서 出生 25 元老會員(農工學·現) 84년 大韓民國 大學校) 52-70년 서울大學校 農大教授· 土設計技術公會會長(現) 實 大統鎮교장 農工科長 63년 同大學院農工科主任教授· 農工學會會長 農業土木學會副會長 71년 農工學會會長 同顧問(現) 73년 技術士會長 同顧問(現) 73년 科學技術省總聯 區 汝矣島洞 장미아파트 A 동 303호 台會理事 74년 學術院會員(農工學) 同년 (782)6314.

만원) 丙吉(10만원) 丙善(10만원) 健寧(10만원) 元茂(15만원) 俊寧(3만원) 丙鎭(5만원) 丙天(5만원) 丙愨(10만원) 丙珣(10만원) 昇寧(10만원) (제공: 健寧)

忠範군 사법고시 합격 서울법대 나온 수재

감찰공 문중의 忠範(29세 경기도 과천시 461-8)군이 1985년도 고등고시(제27회)사법과에 합격하여 문중에서 화제가 되어 축하를 받고 있다.

忠範군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을 나온 수재로서 진직 서울시청공무원인 茂芳(56세 忠北 陰城郡大所面 檀山里)씨의 3남매 중 외아들이다.

가풍계승 위해 활동 元茂·功茂씨의 정성

文穆公 打愚 翔 어른의 12세 직손인 元茂(星元電子代表·중무위원)씨는 선조의 높고 깊은 뜻을 보존하고 자손들에게 가풍을 계승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整理된 작업만도 文集의 복사를 비롯하여 현재도 雷巖書院 謄錄原本 등을 복사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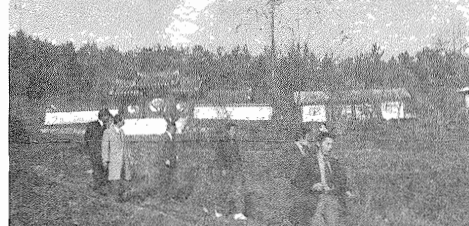
하였는데 특히 복사제본된 자료 중에는 一堂어른이 주관하여 세웠던 시조 문경공 공경어른의 墓園(탁본)책자가 있는데 이 탁본은 1928년 경기도 장단군 소남면 유덕리 마담동에 세워진 비석문의 탁본으로 恒九(一堂の子)어른이 글을 짓고 丙默(斗溪伯兒)어른이 글을 쓴 碑石文이다.

甲寧 都有司 母親喪 문상위원장 司直公墓參拜 도

개봉동 청백리공 시제



청백리공 시제 현장



청백리공묘역 공원화 제사 등 신축계획수립

청백리공 자손들이 선배가 묻히신 묘역을 공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조상숭배의 전통가문을 과시하고 있다.

청백리공과 종중회(회장 俊九)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산1의 1만8백명의 묘역 주변을 조성할 계획아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제1차로 齋舍의 新築과 더불어 時祭에 사용될 祭器는 물론 문중이 사용한 물품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장학재단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자금을 현재 재관에 계류중이 있는 종중 명(천 7백평을 팔아 서울 근교 논을 사서 사용키로 함)를 분묘, 석물, 토목사업 등도 실시해서 명실상부한 청백리공 묘역 공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성균관대학교 도서관기공

지난 해 12월 14일 대중회 명예회장 瑞峰 東寧博士는 成均館 大學校에서 儒學圖書館인 尊經閣을 현대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기공식을 주관하여 문화적 뿐만 아니라 사회향간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 尊經閣은 조선조 成宗

6년에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대략도서관으로 유학의 산실역활을 해 왔었는데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인 서봉 동녕박사가 40억원을 회사하여 유학관계 漢書 10만권을 과학적으로 보존하고 계속 연구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대적 시설로 복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東寧 理事長 號를 따서 瑞峰館으로 名命하고 복원하게 되었다.

學術硏究費 2억원 지원 瑞峰 文化財團 名譽로

또한 瑞峰 東寧 名譽會長은 朴玄炫成均館大學校 教授 등 27명의 교수에게 瑞峰學術硏究費 2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교수 1인당 지급된 한도액은 人文任會系가 5백만원이며 自然系가 1만원이다.

永茂군 미국서 공학박사 학위 받아

지난 해 12월 昇寧(大宗會監事)씨 장남 永茂(33세)군이 미국 North Carolina 주립대학에서 섬유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2남 3년 중 장남인 永茂군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도미유학하였었는데 현재는 뉴욕대학에서 대학강사로 있다.

한편 문상을 마친 중무위원들은 司直公 堧어른의 墓所도 찾아보고 배례하였다. (제공: 樂寧)

老松은 아직도 서 있는데

丙 天

옛날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길리 산○○번지 지역은 지금의 강동구 길동 산○○번지이다.

길동 산○○번지 양지바른 야산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종종산으로 이곳에는 斗峰公 吉培, 大司諫 燾, 司直公 燾어른의 무덤이 있던 곳이다. 이 어른들은 멀리 橫城과 保寧으로 이장되었지만 이 산은 지금 남의 손에 넘어가 개발이 한창이어서 철로망을 쳐 놓았다.

이곳과 가까운 거리에서 사는 덕분에 나는 매일 아침 산책코스로서 이 길을 지나친다.

선조를 모시던 이 지역이 지금은 누구손에 넘어 갔는지 누가 팔았는지 알바는 없으나 어쩔 마음이 편치 않다.

내가 아주 젊었을 때 사리분별을 못하면 "나이 적은 자가 甲戌生이지"하는 농담섞인 말

을 하였다. 이렇게 만났던 甲戌生이고 보니 이제 한 성숙한 인간으로서 철이 드는 모양이다.

조상도 생각하고 후손도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고민이 생기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까?

옛날의 문중재산 팔아 먹는 놈치고 잡되는 놈 없다고 하지만 어쩌면 종손이라고 무슨 관계된다고 하여 술책팔아먹는 일이 흔한 세상이기도 하다. 나는 이렇게 이따금 산책길에 철조망가에서 서 양지바른 언덕에 한 그루 老松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는 고분을 보면 혹시 조상의 무덤이 아닐까 하고 측은해진다.

연진 나는 건녕조카와 누가 시키지도 않은 용인의 문중중담·4800평을 되찾아 소유권을 문중재산으로 확보한 적이 있

다. 이처럼 억척같이 우리 것을 찾아 낸 뒤라야 이산도 지극처럼 철이 났을 때 알았다면 밭벗고 나섰을 것을 하고 아쉬움을 달래본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문중 분묘수호는 대종회의 사업 중 큰 사업으로서 지금 것이나마 보존하는 데 관심을 갖고 특히 자라나는 내 자식과 문중후손들에게 일깨워 이러한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짐해 본다.

오늘도 나는 저 老松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게 외면한 채, 산책길을 오르내린다. (종무위원)

우봉이씨 인명록제작 基 礎 씨가 사비로

대종회 종무위원으로 문중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는 基寧(大松興業(株)社長)종무위원이 자비로 우봉이씨 인명록을 발간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인명록 발간은 오래전부터 여러 중문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대종회에서도 엄두를 못내고 있었는데 1985년 11월 12일 대종회의석상에서 우봉이씨 인명록 발간에 즈음하여 판 전단을 돌림으로서 밝혀진 것이다.

게 시 판

▲ 命九(전 대한적십자사 이사, 미국 L.A 한인노인연합회고문) 모국방문 東寧막사주최 丙澈박사, 丙朝박사, 健寧사장과 회식 (4. 8) 대종보승영비자로 금일봉회사, 4. 25 출국 ▲ 丙澈(고문·학술원위원) 국경자문회참석 (4. 16) ▲ 東寧(名譽會長: 成均館大學理事長) 成大圖書館起工式 瑞峰峰文化財團學術研究費支援事業 展開 ▲ 丙璣(辯護士: 前大韓辯護士協會회장) 金泉市에서 辯護士事務所 開業中 金泉市 平和洞 301-10 電話 2-7428(交)640 ▲ 隨寧(會長: 辯護士) 大宗會신년 모임 自宅에서 主管 ▲ 丙驥(副會長: 東國大學校 教授) 監察公



(시) 思 母 曲 芝 村

이여지고 또 이어지는 그리움은 江 건너 푸른산, 어테선가 부르는 목소리는 사는 보람 남겨주신 님의 숨결, 곱던 모습 歲月에 바랬어도 청순한 내음은 모란꽃 향기처럼 그윽하다. 맑은 물 흐르듯 솟구치는 님의 體臭, 俗節에 祈禱하듯 문풍지 소리에 아쉬움 남기고, 언제나 多情한 故鄕처럼 뼈국새 울음이 이어질 때면 봄나드리 가신듯 허전하다. 麗金山 에 서서

作者註: 우봉이씨 가문의 대를 이어주시는 어머니들을 찬송하고 싶었다. 나의 어머니는 김해김씨 사라울이란 마을에서 나서서 문안문중에 출가하여 6남매를 키우시며 80평생을 일기로 타계하셨다. 그러나 10여년이 된 오늘에도 우리를 가슴속엔 아직도 살아계시다.

우리집 전설 찾아 清白吏묘역과 개봉동산1번지

丙 南 (종무위원)

청백리 淳선대가 잠드신 개봉동산 1번지는 成宗(1470-1494) 때부터 우봉이씨 문중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산 1번지에는 지금도 청백리공의 부친인 芳年선대부터 청백리공 淳, 참판공 根繼(淳子)선대와 몇 분의 일가선대가 잠들어 있다.

이곳과 인연하기는 成宗 때 兵曹判書를 지낸선대가 임종하자 왕은 신하를 보내어 조문토록하였다. 그러나 문상한 신하는 판서역의 草家三問과는 답 한평도 없이 지낸 이판서의 가난에 쪼든 환경에 놀라 왕에게 이 형편을 아뢰었다.

성종왕은 애석히 여기며 이 새로운 사실에 접하자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

"이판서의 청렴결백함은 이미 알았으나 그토록 생활형편이 어려웠음을 모르고 지냈다. 이것은 나의 보살핌이 부족했던 탓이 없느냐"

성종은 즉시 청백리목에 등재토록 하고 나라에서 지금의 개봉동산과 전답을 하사하고 墓祭를 성대히 지내도록 하였다.

成宗朝線 清白史 御詞에 공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藍田珍玉 雪嶺孤松 萬戶長安 一葉靑 지금은 남부순환도로와 학교, 주택 등 九老區開峰洞의 발전으로 침식되어 가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드문 묘역으로서 집안 내력을 더욱 더 빛내고 교훈장이 되도록 문중에서 공헌과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다.

서울에서 수색을 지나 국방대 학원지 자리한 뒤쪽에는 大德山이 있다.

이 大德山을 중심으로 京義線 철길을 따라 德隱 1, 2리와 香2洞에 이르는 지역에서 선대의 무덤을 찾을 수 있으나 대개가 손실되고 감찰공 旻어른을 모신 公墓지역만이 뚜렷이 남아 있다.

香2洞 매골산 양지바른 감찰공 묘지입구에는 270년 전인 1715년에 세운 황해도 관찰사 之信어른의 신도비가 첫눈에 찾을 수 있고 매골산을 오르면서 감찰공 旻, 劼, 之信어른의 순서로 비석과 함께 당대의 세도를 짐작할 수 있으나 같은 연대의 선대가 묻혀 있었으리마 생각되는 오름 꼭 많은 무덤 터는 없었다. 성향과 함께 석동, 석상, 망부석이 흩어져 있을 뿐, 확인할 수 있는 무덤은 없었다. 이

곳을 관리하고 있는 處在植노인을 통해 알아보았으나 어느 선대는 자손들이 화장도하고 손실되어 찾을 수 없고 이따금 몇 분만이 찾아 올뿐이라고 했다.

정오가 되어 일행은 개봉동산 1에 모신 청백리 淳, 參判公 根繼어른이 잠든 곳을 찾았다. 이지역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산밭이나 다름없던 곳이다. 196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봉동은 부천군 소사읍에 속해는 오름 꼭 많은 무덤 터는 있었다. 清白史 淳어른은 9대손으로 兵部判書를 지낸 분이다. 淳어른은 副使公 根完을 비롯

한 根專 根繼 세 아드님을 두셨다. 세분중 종손인 두분들의 자손은 長端, 金川, 白川 開城 등지에서 자손이 퍼지고 參判公 根繼어른은 벼슬로 京畿지방에서 있다가 자손들은 13대 선조가 尙州로 옮기면서 14대부터

한 경을 중심으로 번창하였다. 몇몇 전 참판공 자손들이 이곳을 다시 단장하고 두분의 묘비를 개수제막하였다. 어느 집안이고 선대의 무덤을 잘 가꾸어 나간다는 것은 그 집안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우선 여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 우봉이씨의 자량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하였다. 대종회에서 파악된 묘지분묘를 보아도 뼈대있는 집안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행은 개봉동에서 충남 연기군 전의면에 자리잡은 元省里에 모신 承健어른의 무덤을 찾았다. 承健(1452~1502)어른은

하고 여유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하였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나 당대가 아닌 때대로 대종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만큼 집안자손들이 노력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연산군시절에 벼슬을 한분으로 명나라 사신으로 두번이나 다녀왔으며 부제학 함경도관찰사 호조참판, 동지의금부사에 이른 분이다.

일명 노루목이라 부를 만치 명당인 자리가 마을을 지켜 주듯 양지바른 동산이었다. 우리는 다시 觀亭里 雷巖祠에 모신 打愚 翔어른을 찾았다. 打愚公 直孫인 功茂씨가 친히 반겨준다. 打愚公은 1689년 西人인 宋時熱 등이 실각하고 南人이 집권한 己巳換局 때 투옥되어 옥사하신 분이다. 나중에 추증되고 文穆의 諡號를 받은 어른이시다.

나는 비유에 가신 옛조상들에서 義壽고 公明正大한 일에는 목숨을 걸고 일하신 뜻을 세삼스럽게 생각하게 하였다. (종무위원)

선조의 넋을 찾아 500리

양지바른 노루목의 自強어른·己巳換局때 옥사한 打愚어른

② 글·樂 寧

문경을 중심으로 번창하였다. 몇몇 전 참판공 자손들이 이곳을 다시 단장하고 두분의 묘비를 개수제막하였다. 어느 집안이고 선대의 무덤을 잘 가꾸어 나간다는 것은 그 집안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우선 여유가 있어야